

5. 해방 직후 (1945~1949)

1945년(24세) 4월 1일 모교인 중앙중학교 음악교사로 취직이 되었고, 6월 4일 성악가 유경손과 명동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두 사람의 결혼에 얽힌 일화도 무척 흥미롭다.

두 사람의 인연은 5년 전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서울에서 성악을 공부하던 유경손은 일본 유학을 결심하고 백조합창단 지휘자로 계시는 박태현 선생을 찾아가 의논을 드린다. 선생은 일본에 가면 자신의 제자인 나운영을 찾으라고 소개장을 써 주셨으나 유경손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이 낫다고 생각하여 일본에서 유학중인 정희석 선생에게 연락을 하여 소개를 받고 일본 고등음악학교 본과 성악과에 입학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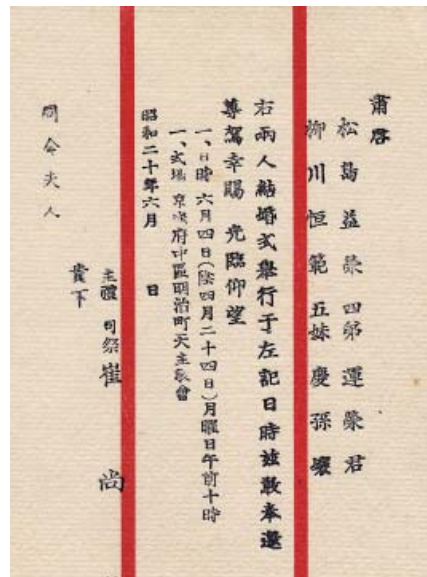
어릴 적부터 예수를 믿던 유경손은 동경 신주쿠에 한국 사람만 다니는 교회인 신주쿠 쓰노하즈新宿角筈교회를 찾아가고 여기에서 알토 독창자로 활약하기 시작한다. 그러던 중 유경손은 크리스마스 축하예배 때 부를 특별찬양을 준비하였으나 그 교회반주자는 찬송가 반주 정도의 실력이어서 반주를 맡아줄 사람을 찾게 된다. 마침 당시 성가대 지휘자인 김진하 선생이 “우리 학교에 작곡과 학생으로 피아노도 아주 잘 치는 나운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참 착실한 사람이니까 내가 반주를 부탁해 보겠다.”고 한 후 다음 주일 오후 나운영과 함께 교회로 왔다. 유경손은 ‘아. 이 사람이 박태현 선생님이 소개하신 바로 그 사람이구나’ 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정중히 오른손으로 고동색 중절모를 벗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이며 “제가 나운영입니다.”라는 인사말 외에는 수줍은 듯 다른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반주만 아주 편안하게 해 주었다고 한다.

이 일이 있는 지 얼마 후 나운영은 같은 유학생인 이동훈의 소개로 이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취임하였으나 1943년 둘 다 귀국할 때까지 피아노 연습실에서 한 번 마주친 것 외에는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만남은 없었다.

1943년 둘 다 귀국한 후 유경손이 신인음악회에 출연하였는데, 연주가 끝난 후 나운영이 무대 뒤로 찾아와 잘했다고 칭찬하며 앞으로 자기 곡도 많이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것이 그 둘의 두 번째

만남이었다.

1944년 경성후생악단의 단원이 되어 알토로 활약하던 유경손은 첼로 주자로 새로 입단한 나운영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만남으로, 세 번의 만남을 통해 한결 가까워진 그 둘은 연습이 끝나면 안국동 유경손의 집까지 함께 걸어가며 음악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운영은 그 큰 첼로를 끌어안고도 유경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늘 유경손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그러던 어느날 유경손이 집안의 권유로 선을 보게 되자, 다급해진 나운영은 “우리 한 집에서 형제처럼 일생 동안 음악공부하면서 살면 어때요? 남들이 이상하게 보니까 결혼이라는 형식을 밟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게 되고, 이를 흔쾌히 승낙한 유경손은 개신교 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세까지 받으며 드디어 1945년 6월 4일 명동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린 것이다.²⁷⁾



하지만 일제 말기요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이었으니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때였다. 쌀 배급은커녕 보리 배급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 때에 결혼을 했으니 살림살이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생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 강냉이 죽만을 먹고 살다가 영양실조로 졸도한 일도 있었다.²⁸⁾

8월 15일 **조국이 해방**되고 채동선 현악 4중주단이 해산됨에 따라 9월 이영세(李永世), 이인수(李仁秀), 윤낙순(尹樂淳) 그리고 나운영으로 구성된 **올포이스**²⁹⁾ 현악 4중주단에 입단하였다.

9월 29일 **중앙중학교**를 사임하고 당시 임영신 여사가 설립한 **중앙여자전문학교(중앙보육학교의 후신, 중앙여자대학, 중앙대학교의 전신)**에 전임교수로 부부가 함께 취임하여 영등포 흑석동 중앙여전 사택으로 이주하였다.

사실 약관 24세에, 자기 또래의 학생들이 있는, 그것도 성숙한 여성들만 있는 학교에 나운영이 부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 임영신(任永信: 1899~1977) 여사와의 일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의 어느 날 나는 동아일보사 1층 오른쪽 방문을 노크했다. 그 방은 대한여자국민당 당수인 임영신 여사가 계신 곳이었다. 물론 나는 당수를 만나 뵈려고 간 것이 아니라 중앙여자전문학교 학장님의 부름

27) 유경손 자서전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38~42쪽

28) 나운영 수상집 3집 '스타일과 아이디어' 175~176쪽

29) 편집자 주: 올포이스 영문 표기가 없어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올포이즈(Orpheus)를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닐까?

을 받아 찾아갔던 것이다.

일제 시대의 중앙보육학교가 8·15 해방이 되자 새로 이름을 바꾸고 음악 교수를 물색 중이라는 것을 알게 된 나는 이 학교의 교수를 역임했던 이영세, 김은우 두 분의 소개로 드디어 구두시험(?)을 치르게 된 것이다.

당시 약관 23세인 내가 떨리는 마음으로 조용히 문을 열어 보니 위풍당당한 여장부께서 만면에 미소를 띄우면서 나를 반겨 주시는 것이었다.

“그래 나이가 몇이시요?”

첫 물음에 나는 단박 요즘 신식 말대로 쇼크를 먹고 말았다.

“... .. 스물 셋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순간 난처하다는 듯한 표정이 여사의 얼굴에 번졌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과 나이가 비슷하군요. 음악가들은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지 학생들과 종종 스캔들이 생기는 모양인데 그게 문제란 말이야... .. 예전에 이화여전에서 그런 일 두어 번 있었구... ..”

내심으로 ‘이젠 틀렸구나’ 하면서도 최종 판결이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가슴은 떨려왔다.

“그래 결혼은 했소?”

“금년 6월에 했습니다”

“부인은 필 하시요?”

“둘이 다 음악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요?”

“믿습니다” 웬지 좀 용기가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제 선배 중에 가끔 여학생들과 스캔들을 일으켰던 사람들 얘기를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겐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비록 음악가로써는 대성 못하더라도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것은 안하겠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한참 동안이나 나를 바라보며 깊은 침묵 속에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던 여사가 돌연 말문을 열었다.

“그럼 내외가 다 나오시오!”

나는 그만 어리둥절해지고 말았다. 나 하나도 취직이 될까 말까 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던 판에 둘 다 나오라고 하시니 이게 도대체 꿈인가? 생시인가? “네?”하고 반문할밖에.

그러자 여사는 만면에 웃음을 띄시면서 “우리 학교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학교이니 두 내외가 와서 열심히 일해 주시오” 하며 힘차게 나의 손목을 쥐어 주시는 것이었다.

드디어 10월, 중앙여자전문학교는 보육과, 문과, 경제과의 3과로 개강을 하게 되었고 나는 주로 보육과에서 화성학, 반주법, 오르간 레슨을 담당했다. 합창만은 다른 과 학생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 나는 지휘를 하고 아내는 반주를 맡았다. (중략)

그 당시 우리는 학교 사택에서 살았는데 이 집 바로 옆이 학장님 저택이어서 이승만 박사는 물론 외국 손님들의 초대 연회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 내외 역시 빠짐없이 참석해서 음악순서를 도맡게 되었다. 학장님께서 내빈들

에게 우리 내외를 자랑삼아 소개해 주시곤 하던 일이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³⁰⁾

나운영은 보육과 학생들을 가르치며 「자장가」(김영수 요), 「이 닦는 노래」(윤석중 요), 「어린이 노래」(유경손 요), 「자장가」(김태오 요) 등을 작곡하였고, 강습회 등을 통해 이때부터 꾸준히 유경손의 노래말에 곡을 붙여 100여곡이 넘는 유아를 위한 동요를 작곡하였다.

1946년(25세) 3월 1일 **민족 음악문화 연구회를 정 추(鄭 樞, 1923~2013)와 함께 창립하고 회장에 취임**하여 민족 Vocal 악보를 발간하였는데, 그 취지문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취지

본 연구회는 국제민주주의 노선에 따라 국내의 일제 봉건적 제관계 위에 선 특권계급만이 향유할 수 있는 지배자의 문화를 일소하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또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는 인민을 토대로 한 민족적인 문화를 수립할 민족음악 문화운동을 전개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음악에 있어서도 우리의 유산과 전통의 계승문제 및 과학적 진보적인 이론체계와 발전사를 가진 외국음악문화의 조선적 섭취문제 등의 연구는 이 땅의 음악인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할 중대과제이며 또한 의무일 것이다.

본 연구회는 조선에 있어서 아직은 황무지에 있는 음악분야와 특히 이론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지 못한 국악의 조직이론과 현 단계의 역사적 위치 등을 음악과학으로서 혹은 예술사적인 관점과 견지에서 규명 확립하고 또한 외국음악의 조선적 섭취문제에 관하여 그 옳은 발전적 방향과 그 본체적 내용으로서의 양식과 표현기술적 문제 등을 음악학도와 인민에게 명시함으로써 민족음악문화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바이다. 본 연구회는 국악과 양악과의 형식적 절애 즉 전연 조율법이 틀리는 조선악기와 양악기와의 배합 또는 국악의 지역적 양악식 편곡 등을 절대로 배격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소위 신일본음악운동의 화양절애의 무모하고도 유치한 이론과 허망했던 노력을 고지하는 까닭이다.

만일 조선에서도 이러한 국악과 양악과의 형식적 절애의 무지를 되풀이하고자 하는 무리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민족음악의 건전한 발전을 방해하는 독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로 국악과 양악과의 교류는 오직 조선민족의 주체적 민족적 실천에 기초를 둔 높은 음악정신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조선의 외국음악 수입 후의 짧은 역사를 돌아볼 것도 없이 이 땅의 사회적 객관적 제약과 음악인 자체의 무력(無力)으로 말미암아 후인이 계승 받을 만한 문화적 유산과 전통의 결여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있어서 미력하나마 민족음악문화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이러한 제문제를 해결하고자 조직한 것이 민족음악문화연구회이다. 이러한 민족음악문화운동은 그것이 여하히 곤란한 사업이든 인민과 같이 걸어감으로써 생성 발전할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30)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139~140쪽

6월 24일 조선음악가협회 위원장인 이영세 선배로부터 작곡 의뢰를 받고 「Cello Sonata No.1 'Classic」을 작곡하여 6월 29일~30일 조선음악가협회 주최로 국제극장에서 개최한 〈우리 작품 발표 음악회〉에서 이강열(李康烈, cello), 김원복(金元福, piano)의 연주로 초연하였다. 이 〈우리 작품 발표 음악회〉에는 '조선악단의 지보至寶 총출연'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박태준, 이흥렬, 김순애, 안기영, 현제명, 임동혁, 김세형, 김성태, 홍난파의 작품이 함께 연주되었다.



나운영은 이 날의 연주에 대해, 이강렬은 음악학교 3년 선배요, 김원복은 민족의 노래 「봉선화」의 작사자이자 은사이셨던 김형준 선생님의 따님이시니 당대 최고의 연주가에 의해 자신의 처녀작이 초연되었다는 것은 천행이 아닐 수 없었다고 말하였다.

3악장으로 된 이 「첼로 소나타」의 제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제2주제를 5음음계로 작곡했고, 제2악장은 복합 3부분 형식으로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 있고, 제3악장은 론도 형식으로 민속적인 멜로디에 굿거리 장단을 곁들여 우리 음악의 멋과 맛을 풍긴 작품이다. 나운영이 토착화에 대해 눈이 뜬 최초의 실내악 작품이다.³¹⁾

이 곡에는 기막힌 사연이 있다.

6년 후인 1952년 12월 부산 피난 시절 열린 〈제1회 나운영 작품 연주회〉에서 이 곡을 재연하였는데, 김재홍이 첼로, 정진우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안병소 선생께서 친히 레슨을 맡아 연습을 시켜 주셨었다. 그러다 연주회를 1주일 정도 앞둔 어느 날 정진우씨가 연습을 마친 후 악보를 끼고 만원 버스를 타고 가다가 그만 악보를 분실한다. 불과 1주일밖에 안 남았으니 연주를 취소할 수도 없어 모두들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첼로 파트만은 김재홍씨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운영은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이틀만에 피아노 파트를 다시 썼고 이것이 원본과 조금도 틀리지 않게 만들어져 거뜬히 연주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³²⁾ 나운영은 처녀작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말하였다.

8월 14일 예술가곡 「박쥐」(유치환 시)를 작곡하였다.

8월 16일 예술가곡 「달밤」(김태오 시)을 작곡하였는데, 나운영은 중앙여자전문학교의 부학장인 시

31)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5쪽

32) 나운영 수상집 4집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153~15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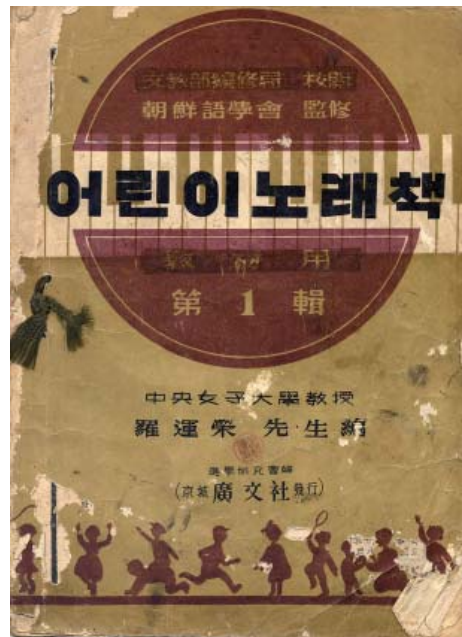
인 김태오 선생에게서 시집 『초원』을 받아 보고 그 중 「달밤」에 마음이 이끌리어 구상 끝에 16일 완성하여 19일 JODK(경성중앙방송국)의 방송을 통해서 첫선을 보였는데, 독창자는 그의 아내인 유경손이었고, 피아노 반주는 나운영 자신이 하였다.

그런데 김태오 선생은 일찍이 흥난과 선생에게 바이올린 레슨까지 받았던 분인지라 남달리 음악을 깊이 이해하였다. 그래서 나운영과 김태오는 서로 합작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약속까지 하여 제일 처음 쓴 것이 「전국의 노래」요, 두 번째 쓴 것이 「달밤」이요, 세 번째 쓴 것이 「중앙대학교 교가」이다.³³⁾

9월 나운영은 우연히 「가톨릭 교리비판」이라는 꽤 두꺼운 책을 한 권 읽은 후 가톨릭 교리에 대한 의문이 생겨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곳에 빨간 밑줄을 그어 신부님께로 가져가 물었다. 하지만 신부님은 ‘그 책은 금서禁書인데 그것을 읽은 것이 죄고, 교리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라며 나운영의 답답한 심정을 묵살하였다. 결국 나운영은 의문은 조금도 풀리지 않은 채 죄인 취급만 받게 되었고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어느 날 고해성사를 하고 돌아와 그때부터 개신교로 개종하였고, 그 후 북창동에 있는 전인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서울교회(현 한양교회)에 나가 성가대 지휘를 하였다.³⁴⁾

10월 전국 취주악 연맹 이사에 취임하였으며, 문교부 편수국에서 교열하고 조선어학회에서 감수한 『어린이 노래책 교재용 제1집』(광문사)을 편집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곡은 다음과 같다.

조선의 꽃(이은상 요, 안기영 곡), 귀뚜라미(방정환 요, 윤극영 곡), 기러기(윤복진 요, 박태준 곡), 새야새야 파랑새야, 달아 달아, 강아지 래요(김성도 요, 김성태 곡), 집보는 아기의 노래(윤석중 요, 박태준 곡), 눈꽃새(모 령 요, 권태호 곡), 꼬부랑 할머니(최영애 요, 윤극영 곡), 나 이(윤석중 요, 김성태 곡), 꿀돼지(윤석중 요, 흥난과 곡), 설날(윤극영 요, 곡), 도레미파(흥난과 요, 곡), 고드름(버들쇠 요, 윤극영 곡), 엄마(최수복 요, 박태현 곡), 자장노래(이명식 요, 흥난과 곡), 우리아기 행진곡(윤석중 요, 정순철 곡), 누가누가 잠자나(목일신 요, 박태현 곡), 하모니 카(윤복진 요, 흥난과 곡), 늙어질라(강승한 요, 박태현 곡), 반달(윤극영 요, 곡), 오빠생각(최순애 요, 박태준 곡), 문자보급가(구왕삼 곡), 클레멘틴



이 노래책의 머리말은 편수국의 박창해가, 한글교정에 대해서는 한갑수가, 교열감상에 대해 태양사

33) 월간 새농민 1988년 9월호, 가곡 순례 56-57쪽

34) '음악과 신앙으로 점철된 내 생애' <신앙계 1977.12월호>

가 글을 남겼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³⁵⁾

해방후 불과 수주일이 지나갈말가하였을때 어느 재빠른 선생님이 가리치였는지는 모르지만 벌써 골목에서는 어린이들이 우리노래를 소리높이 부르고 있었습니다. 일본군국주의가 강여한 군가가 일소되고 이자연스럽고 명량한 우리 소년소녀가 부르는 노래야말로 참으로 해방의 특징이 되었으며 평화의 메로되였습니다. 나는 아모리 맞분길이라도 받을 멈추고 이 어린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에 귀를 기우리지않을 수 없었으며 나도모르게 감격의눈물이 소사오름을 금치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단유감스러운것은 시급하였던 관계도 있었겠지만 곡이나 가사가 대개틀닌것이 많은점에 놀래습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 여정확 동요곡집을 발행하고자하든바 마침 같은뜻을가지신 중앙여자대학교 나운영선생과 수고를어디 “어린이노래책”을 발행하게되었습니다. 선생께서는 다년간몰두하신 음악교육자로서 실제경험과 풍부한 음악지식을 경주하시여 가장 어린이들에게 유익한것을 선택하시고 불충분한것도 개편도하시고 반주가없는것은 반주를부치시되 필요에의하야 2중,3중,혹은 전주 후주를 부치여 초등학교,유??교재용으로 충분한 역할을할수있도록 노력하여 주시였습니다. 다시 문교부편수국에서 세의교열을 하여주고 가사에는 조선어학회에서 수삼차나 감수를 하여주시는등 각?에따러 최선의 노력을 하여주시신결과 비로소 완전한 어린이노래책이 완?되었습니다. 원래 난점이 많은 악보출판인데다가 해방후 우리나라 인쇄시설로는 정상적악보출판은 거히 불가능한 지에 있었음으로 시일도 ??었으며 난관도 많았으나 몇재편 언트? 조선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어린이노래책을 내놓을수있다는것이 무한히기쁩니다.

태양사 백

1947년(26세) 1월 23일 예술가곡「가는 길」(김소월 시)을 작곡하였다.

첫딸 혜선을 뚫 지난 지 녀 달 만에 병으로 앓고 흥제원 화장터에 다녀온 후 그 슬픔으로 나운영 부부는 중앙여자대학의 사택인 그 집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8월 31일 학기만 마치고 **중앙여자대학을 사임**한 후 다른 집을 구할 경제적인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사택을 나와야했는데, 다행히 『어린이 노래책 제1집』이 잘 팔려 나운영 부부는 용산구 청파동 1가 89-67에 처음으로 자신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³⁶⁾

9월 **과도정부 중앙청 문교부 초대 음악편수사에 취임**하였고, 역시 9월에 을포이스 현악4중주단에서 베토벤의 「String Quartet No.4」를 연주하였으며, **국립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 시간강사, 조선신학교 시간강사, 조양(朝陽)보육사범학교(지금의 경기대학) 전임교수로 취임**하였다. 또 **문교부 주최 전국 음악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그동안 성가대 지휘자로 봉직하고 있던 서울교회가 무슨 이유로인지 문을 닫게 되어 유경손이 처녀

35) 인쇄상태 때문에 글씨가 전혀 안 보이는 것은 ?로 표시하였고 맞춤법에 맞추지 않고 원상태로 기재함.

36) 유경손 자서전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48-50쪽

시절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이신 최거덕 목사님이 시무하시던 **덕수교회**를 찾아가 **성가대 지휘**를 하였다.

1948년(27세) 3월 14일 **장녀 효선**孝璇이 출생하였다.

나운영과 유경손은 주말마다 아기를 업고 청과동에서 덕수궁 옆 덕수교회까지 걸어서 다녔는데, 어느 날 저녁예배 시간에 늦게 되어 집에서 가까운, 서울역 앞 언덕에 자리 잡은 바울교회(현 서울성남교회의 옛 명칭)를 찾았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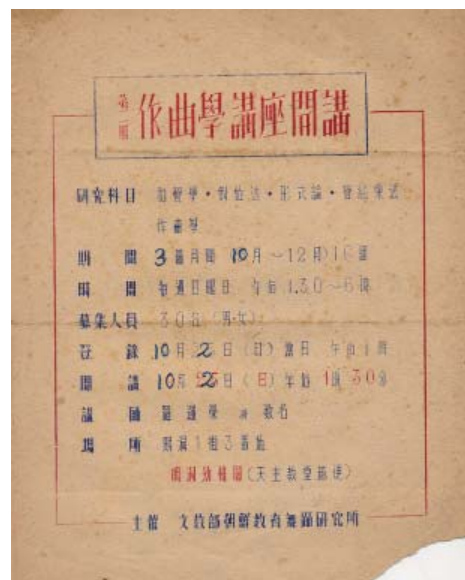
교회는 낯고 의자는 소위 호떡의자였지만, 찬송을 부를 때 온 교인이 화음을 넣어 불러서 무슨 합창단의 연주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목사님의 설교는 힘이 있었다. 나운영과 유경손은 첫날부터 그 교회에 반하게 된다. 그 후 어느 날 저녁 성남교회 저녁예배에 두 번째로 간 날, 성남교회의 담임목사님이시던 만우^{晩雨} 송창근(宋昌根, 1898~1953 납북) 목사님께서 예배 후 광고를 하시면서 “이 분이 앞으로 우리 교회 성가대를 맡으실 분인데 이 어른을 나와 같이 모시라”고 소개하셨다.³⁸⁾

송창근 목사는 나운영을 이전부터 지휘자로 점찍어 두었고, 송창근 목사와 최거덕 목사는 아주 각별한 사이였기에 송창근 목사가 사전에 최거덕 목사에게 양해를 구해 두었던 것이다. 나운영은 27세 밖에 안 된 자신을 극진하게 대해 주시는 송창근 목사에게 감격해 **덕수교회를 사임하고 성남교회**(현 서울성남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취임**하여 이후로 32년간 봉직하였다.

8월 30일 **과도정부 문교부**를 사임하고, 9월 1일 **숙명 여자대학 음악과 시간강사**에 취임하였다.

10월부터 12월까지 명동 1가 3번지에 있는 명동유치원에서 문교부 조선교육무용연구소 주최로 <제2기 작곡학 강좌>를 개최하였다. 연구과목은 화성학, 대위법, 형식론, 관현악법, 작곡학으로 3개월간 매주 일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지도하였다.

10월 1일 **국립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 전임강사**에 취임하였고, 12월 31일 예술가곡 「별과 새에게」(윤곤강 시)를 작곡하였다.



37) 유경손 자서전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51쪽

38) 나운영 '음악과 신앙으로 점철된 내 생애' <신앙계> 1977년 12월호

1949년(28세) 3월 19일 예술가곡 「강 건너간 노래」(이육사 시)를 작곡하였고, 9월 서울 중앙방송국 음악계장에 취임하였다.

10월 27일 헌금찬양을 위해 「주께 드리네」를 작곡하였는데, 이 곡은 천주교 『새 전례 가톨릭 성가집』에 실려 있어, 개신교 교회에서보다 오히려 천주교 성당에서 더 많이 불려지고 사랑받고 있는 곡이다. 작사자는 Van De Venter로, 찬송가 71장의 가사를 가지고 작곡한 것이다.

11월 7일 성가독창곡으로서는 최초의 작품인 성가독창곡 「아흔 아홉 양」을 작곡하였다.